

개 브루셀라증 예방수칙 안내문

개 브루셀라증은 사람간 전파보다 감염 개와 직접 접촉이 주요 위험요인으로, 예방수칙 준수 및 노출 시 면밀한 건강모니터링과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□ 브루셀라증이란?

- 브루셀라균(*Brucella* spp.)에 의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 공통감염병*이며 감염동물에 따라 병원체가 다양합니다. 그 중 개를 숙주로 하는 병원체는 *B.canis*로 만성감염과 유산 가능성이 있습니다.

* 인수공통감염병: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| 병원체 종류 | 숙 주 | 특 징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>B. melitensis</i> | 염소, 양, 낙타 | 병원성이 가장 높고, 증증화 가능성 |
| <i>B. abortus</i> | 소 | 국내 주요 균주이며 상대적으로 병원성은 약하나 만성화 가능성 |
| <i>B. suis</i> | 돼지 | 국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, 만성감염과 농양 형성 |
| <i>B. canis</i> | 개 | 임신 중 감염 시 유산 가능성, 만성화 가능성 |

□ 개 브루셀라증 감염 경로

- **(접촉)** 감염된 개의 출산 부산물(양수 및 태반 등)이나 대·소변, 유즙, 혈액, 침 등이 피부 상처나 결막 등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됩니다.
- **(흡입)** 유산, 출산 시 양수 또는 감염 조직에서 배출된 분무나 사육장 청소 시 등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먼지(에어로졸)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됩니다.

* 사람간 일상접촉을 통해 감염되지 않으나, 드물게 성 접촉, 수혈, 골수이식 등에 의해 감염됨

□ 사람에서 개 브루셀라증 증상

- 무증상이 흔하며, 임상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비특이적입니다.
- **(급성)** 노출 후 평균 2~4주 내에 감기유사증상(발열, 오한, 두통, 근육통,

관절통 등)이 나타납니다.

- (만성)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며, 척추염 대동맥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□ 개 브루셀라증 예방법

○ 개인보호구 착용

분만·유산·사산 견, 감염된 개의 혈액·대소변·양수·태반 등을 다루는 작업을 할 경우,

- ⇒ 반드시 방수 장갑, 마스크(KF94 이상 권장), 방수용 앞치마, 장화, 안면 보호구 및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기



○ 개인위생 철저히

- 사용한 보호구 폐기 또는 세척(방수용 앞치마 등)
- 식사·흡연 전에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
- 베이거나 긁힌 상처는 즉시 소독하고 봉합하여 감염 노출 예방
- 감염성 있는 물질이 점막(눈, 코, 입)에 들어갈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
- 임신, 면역저하,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된 개의 출산과정에 참여하지 않기

○ 청소 및 소독

- * 분만·유산·사산 견, 감염된 견의 혈액·대소변·양수·태반 등을 다루는 작업이 끝난 후
- 유·사산 작업 후 청소 및 소독 실시하기
- 보호복을 벗을 때는 오염된 부분이 자신의 옷이나 맨살에 닿지 않도록 함
- 유산시 배출된 부산물은 방수팩 등에 담아 안전하게 처리하기
-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며 직접 손에 닿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기
- * 에어로졸을 통한 호흡기 전파 위험이 있음

□ 개 브루셀라증 접촉시 대처 요령

○ 6개월 간 증상 모니터링

- ① QR 접촉자 인적정보 등록한 후,
- ② QR 증상 발생 시 신고



[질병관리청] ①



[질병관리청] ②

* 질병청에서 주2회 증상모니터링 문자 발송예정

①

②

○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

-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작업이나 최근 활동, 건강 상태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해 주세요.
- 개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개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, 즉시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.

□ 개 브루셀라증 치료

○ 항생제 복합투여를 6주간 이상 복용합니다.

* 항생제 종류: 독시사이클린과 겐타마이신 또는 독시사이클린과 리팜피신

○ 재발 및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* 치료 완료(종료) 후 2년간 헌혈을 금지해야 하며,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접촉 주의